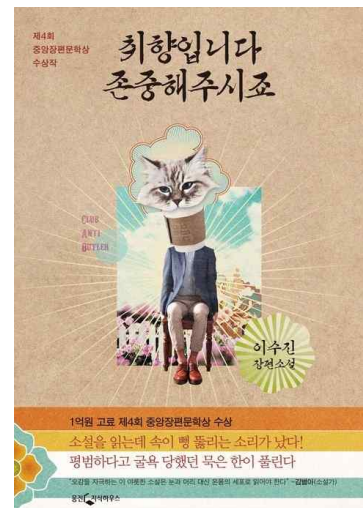


책을 가꾸는, 출판편집자가 되기 위하여

01. 진로 목표

출판편집을 준비하게 된 데에는 사실 이렇다 할 거창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과 같이 무엇을 내 진로로 삼는 것이 좋을까 늘 고민해 오던 한 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분기별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저는 목표하던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또 무엇을 해야 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새 학기가 코앞이라 다른 자격증을 준비하자니 시기가 애매한 탓에, 책이라도 읽으면 이 불안함이 조금 해소될까 싶어 지역에서 운영하는 국립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서적들 앞에서 무슨 책을 읽는 것이 좋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던 와중, 유독 시선을 붙잡는 제목의 책을 한 권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수진 작가의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였습니다. 책장을 비집고 그 책을 꺼내었을 때엔 참으로 신비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취향이라 함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표지 디자인은 한 마리의 고양이가 인간의 신체에 합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와 취향 그리고 존중. 이들은 무슨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곧바로 대출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완독하였을 땐 충격에 한참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작가만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꾸린 줄거리도 물론 한몫하였으나, 제게는 책 한 권을 꾸리기까지 담당자의 노고와 창의력이 더욱 크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쓰고자 하는 표현법을 정확히 인지하여 이를 작품 검열 및 교정 시 반영해야 하는 것. 그것을 집약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 작가의 선호 지점을 반영함은 물론 독자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을 만한 것을 골라내야 하는 것. 그 모든 이상과 존중, 센스가 뒷받침되어 한 권의 책이 비로소 탄생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담당 출판편집자의 소임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업에 대단함을 느끼고는 채 얼마 되지 않아, 만약 ‘내가 출판편집자였다면 이 책의 표지를 어떻게 구성했을까’하는 궁금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포토샵 정도는 다룰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서는 스스로 표지를 만들어 보거나 제목을 새로이 구상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간을 보내며 지루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은 일절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채널부터 출판편집자 관련 서적 그리고 갖가지 인터뷰를 읽어나가며 이 호기심이 점차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도 출판편집자가 되고 싶노라고,

02. 자기 분석

단언컨대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사교’일 것입니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데에 있어 거리낌이 없고, 낮을 가리지 않으며 어색한 환경에서도 분위기를 금방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데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관용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주변 이들을 대합니다. 또 도움을 청하는 지인에게는 책임을 느끼며 곧바로 손을 건네고, 도움을 받을 적에는 마땅히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다른 키워드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비단 이것은 당장 내일 그리고 모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약 일여 년을 어떻게 보내야 소위 ‘이만하면 잘 살았다’와 같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한 해를 보낼지, 한 직업을 가지기 위하여 이 해는 어떠한 성과를, 저 해는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 노력합니다. 계획에 구체성을 더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특히나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성격이 바탕되어 나타난 장점에는 협력적 문화에 강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타인에게 쏟는 관심과 친절은, 막 형성되어 경직성을 가지는 팀의 분위기가 곧 풀어지는 데에 있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팀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순한 방향으로 풀어가도록 조율할 수 있고, 활동 중간 새로운 인력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팀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조언이 가능합니다. 또 체계적·계획적이기 때문에, 팀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업무들을 팀 구성원 각자의 능력치에 맡게 분담하고 이것이 일정 일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확정된 일자에 차질이 생길 경우도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재조율하고 공지하는 등에 있어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성향은 곧 주변 이들로부터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는 대부분 리더 역할을 맡아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하여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선별한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아닌, 누군가의 조정을 통해 부여받는 구성원들 안에서 동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빠거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지레 답답함을 느끼고 맙니다. 최대한 팀원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해 주려 하지만 팀원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열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차라리 대신하여 일정을 맞추려 하는 경향도 종종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서야 팀원의 개인적인 이유, 특히나 게으름으로 인하여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저의 또 다른 단점에는 전적으로 팀원 중심에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생길 적엔 저 혼자 1인 팀을 꾸려 진행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 묻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당량을 교류하고, 소통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덜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주변 이들의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홀로 팀을 구성할 때엔 그것에 제약이 생기기에 스스로가 내린 결과에 전적인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03. 목표 분석

본 분석은 워크넷의 ‘출판물기획자’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출판물기획자는 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위 카테고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내용물을 조사합니다. 이때 조사는 주로 소비자가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시장의 동향과 타 출판물의 수익성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빠르게 비교 및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는 이것을 글로써 옮길 수 있는 작가를 섭외하고, 그가 구상한 인물들이나 집필한 원고를 검토합니다. 단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검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휘나 사용이 희박한 구문들을 검열 및 교열 작업을 거칩니다. 퇴고 과정이 열추 마무리되면 내용상 필요한 그림이나 삽화 혹은 사진 등을 삽입하기 위하여 미술가나 사진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줄거리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표지 작업자를 선정하며, 인쇄 및 후가공을 담당할 업체를 선별하여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 담당자들을 마주합니다. 무수한 관계를 통하여 책이 발간되게 될 때는, 이후의 홍보 및 판매 방법 등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령 작가의 북 콘서트 혹은 인터뷰 등을 진행하게 될 때 역시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는 등의 매니저 역할을 도맡습니다.

출판물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국문학과 및 어문 계열의 전공자가 진출하는 편입니다. 경력이 부족할 경우 관련 협회의 아카데미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수료하여 출판 기획 및 편집 교육을 받습니다. 또 마케팅 능력과 기획력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외국의 선례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많아짐에 따라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500여 개의 직업 종사자들의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는, 출판편집자에게 중시되는 요소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고 구체적 소요 내역을 산출하는 재정 관리력 등이 꼽았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국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편집 기술이 기반이 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그리고 글로벌 추세를 잇는 토익 및 토플 등을 주로 취득합니다. 특히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경우, 국어를 정확하고 교양있게 사용하여 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보전해야 할 선도적 사명과 책임을 목표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판편집자라 하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출판편집자의 고용은 감소하는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종이책 중심의 독서인구가 감소하고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가 산업의 정체를 빚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콘텐츠 구현 방식을 인쇄 형태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하고, 이것을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웹툰 콘텐츠와 결합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은 덜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산업이 비중 있는 변화를 맞게 된 만큼, 업계의 채용은 경력자 위주가 강할 것이기에 신입 기획자의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파악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해와 미적 감각, 트렌트를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마케팅 수준을 고루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04. 계획 수립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목표)
학점 관리	전적 대학 총평균 4.2		1학기: 3.67 2학기: 4.1	총평균 4.1 졸업
대외활동	TVCF 광고평가단		TVCF 광고평가단	
			인문학 동아리 <브런치문학> 운영	
자격증	한국사검정능력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상공회의소 한자	KBS한국어검정 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레스토랑 서버 독서실 총무	편의점 캐셔 독서실 총무 근로장학	편의점 캐셔 근로장학
교내활동			국어국문 출판팀 <문득> 소속	출판팀 <소반>(운영) 목표
취업				독립출판사 <밤산책가> 소속

1. TVCF 광고평가단은 매달 On-air된 CF 중 100~130편 이상의 영상을 창의성과 호감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하는 대외활동입니다. 영상미와 스토리, 촬영 구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연속 5개월 활동 완료 시 광고평가단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상위 우수 평가자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줍니다. 저는 위 활동을 통하여 한 차례 우수자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CF 김태형입니다.

항상 광고 평가단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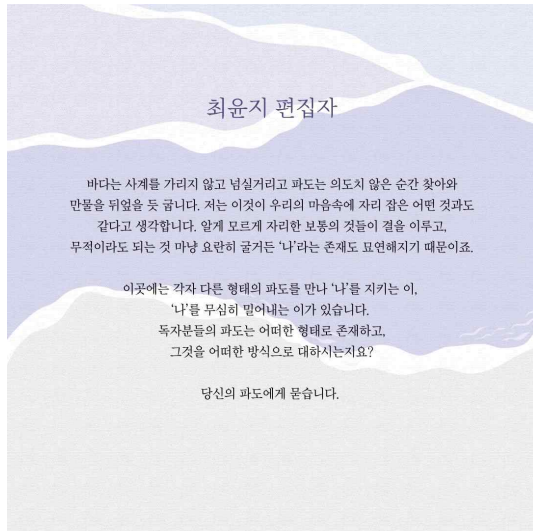
회원님께서 10월 광고평가단 우수평가자로 선정되셔서 선물로 "C&U 1만원 상품권 보내드리려 합니다.
선물을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회신해 주세요

앞으로도 광고평가단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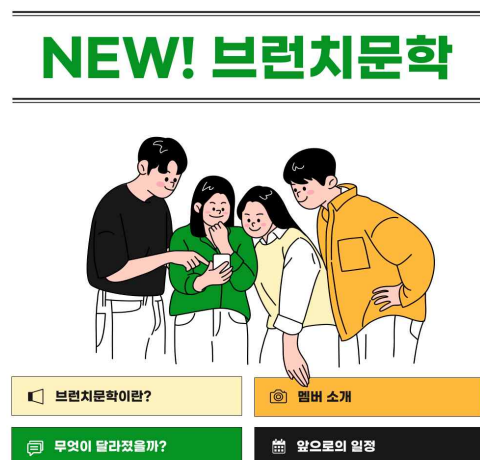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제11회 서울영상광고제 Young Creative Awards 에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의 Creative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2. 국어국문 출판팀 <문뜩>은 책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까지 자체 제작하여 진행하는 학과 활동입니다. 저는 이곳의 편집부 소속으로 책 구성을 기획하고, 4명의 시인의 원고를 수정하였으며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통해 인디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팀 문뜩은 실물 책 발간과 함께, 크몽을 협업체로 하여 전자책 출판을 성공하였습니다.



3. 인문학 동아리 <브런치문학>은 전남대학교 인문대 취업동아리 H-Union의 사업 지원을 받아 구성된 팀으로, 동계 두 달 동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독자들에게 근현대 문학사를 소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주 회의를 통해 달별 콘텐츠 제작에 힘썼습니다. 첫 달은 1910년~1930년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을 다루었고, 두 번째 달은 분단국가와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천여 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진 계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업 지원이 끝난 상태이나, 구성원들의 기획 목적과 목표 의식을 통해 계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상상유니브와의 컨택하여 콘텐츠 관련 상품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4. 독립출판사 밤산책가는 2019년 9월, 소규모의 인원이 모여 글을 직접 작성하고, 퇴고하고, 출판하는 북구 등록 기업체입니다. 현재는 7기를 모집하여 총 1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편집부장을 담당하며 세 번째 문예지인 <이-어짐>을 집필 및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텀블벅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3월 최종 출판을 목표로 합니다.

문학

어짐으로 이어진 우리, [이-어짐]



모인금액
398,000 원 39%

남은시간
56 일

후원자
> **20 명**

목표금액 1,000,000원

환영 기간 2023.01.27 ~ 2023.03.28 **56일 남음**

결제 목표금액 달성시 2023.03.29에 결제 진행

25 5 **이 프로젝트 후원하기**

5. 2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2월 17일 기점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한자 시험 3급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 학점 관리와 아르바이트로 인해 자격증 공부에 어려우나, 하계는 계절학기 수료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1급 필기를, 동계는 계절학기 수료와 KBS 한국어 검정 시험 2+급 취득을 계획하였습니다. 또 학기를 모두 수료하고 졸업을 앞둔 즈음 컴활 1급 실기를 취득해 수립한 계획을 모두 이행하고자 합니다.

05. 졸업 후 목표

03. 목표 분석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출판 업계는 경력자를 위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는 졸업 후 광주·전남권 중심의 독립출판사 안에서 1~2년 정도 취직하거나 SBI 출판 학교 안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습득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출판의 메카 파주의 출판 도시에서 정식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위치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약 6여년 후에는 꿈에 그리던 출판사인 '위즈덤 하우스'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세이나 소설 그리고 시와 같이 장르를 분간하지 않고 최대한 다방면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출판 체계를 심화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정도 흐른 뒤에는, 출판편집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출판 꿈나무들과 함께 출판사를 만들어 인간다움을 함께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저서를 직접 써 내려가거나 편집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